

독신가구의 주거선호 실태

조 명 은(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I. 서론

주택의 형태나 디자인은 그 시대의 가치관과 생활을 반영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독신가구는 편부모가족, 무자녀가족, 비동거가족(주말부부), 공동체 가족, 노인단독가구 등의 다양한 가구 유형 등과 함께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부부와 미혼 자녀’라는 전형적 가구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된 주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 1960년 총가구수의 2.3%에 지나지 않던 1인 가구(독신 가구)가 1990년대에는 9%에 이르고, 2000년에는 15.5%로 급속히 증가되었다. 일반가구는 '95년보다 10.4% 늘어난 반면 1인 가구는 '95년보다 35.4%증가하였다(통계청, 2000). 이는 20세 이상의 미혼 및 이혼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결혼 1백건당 이혼수로 표시하는 이혼율비는 1980년 5.8%에서 1995년 16.8%, 2000년 35.9%로 늘어났다(인구동태통계연보, 2001).

이러한 독신가구의 증가는 주택시장 수요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건축기술의 발전, 시설의 첨단화, 사회의 정보화 등 산업구조의 발전과 함께 주거생활을 변화시키며 주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 및 산업 구조와 생활 변화 등에 대응하여 인간의 기본적 주거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신가구의 생활과 주거선호를 파악하여 주거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며, 독신가구들의 주거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독신가구의 주거선호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주택의 공급자에게 독신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변화된 주택시장에 적합한 독신가구용 주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Ⅱ. 독신가구의 주거 선호 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주택의 형태와 규모 및 주택의 각 공간, 시설설비 등에 대한 선호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30, 40대 연령층의 독신자를 중심으로 2001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6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남성 78명(48.8%), 여성 82명(51.3%)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분포는 30대 123명(76.9%), 40대 37명(23.1%)으로 30대가 더 많았다. 학력은 고졸 12명(7.5%), 대졸 99명(61.9%), 대학원 이상이 49명(30.6%)로 대졸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92.5%를 차지하였다. 직업은 전문직이 48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이 42명(26.3%)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변인	집단	빈도	백분율(%)	변인	집단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78	48.8	나이	30-39세	123	76.9
	여자	82	51.3		40-49세	37	23.1
	계	160	100.0		계	160	100.0
학력	중졸	0	0	직업	전문직	48	30.0
	고졸	12	7.5		관리직	2	1.3
	대졸	99	61.9		사무직	42	26.3
	대학원 이상	49	30.6		자영업	7	4.4
	계	160	100.0		기술직	14	8.8
결혼 여부	미혼	148	92.5		판매, 서비스직	10	6.3
	사혼	3	1.9		무직	13	8.1
	이혼	9	5.6		기타	24	15.0
	계	160	100.0		계	160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	20.8				
	100-150만원 미만	31	19.5				
	150-200만원 미만	49	30.8				
	200-250만원 미만	21	13.2				
	250-300만원 미만	15	9.4				
	300만원 이상	10	6.3				
	계	159	100.0				

독신의 148명인 92.5%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이며, 3명인 1.9%가 사별한 경우, 9명인 5.6%가 이혼한 경우였다. 소득은 150-200만원 미만이 49명인 30.8%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이 33명으로 20.8%, 100-150만원미만이 31명으로 19.5%의 순이었다.

2. 주거계획에 영향을 주는 독신자 생활양식

독신가구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가구와는 생활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주택에 대한 요구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주거계획에 영향을 미칠 독신자들의 생활양식을 여가활동, 주택내 시간활용, 소비지출 항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여가활동

독신자들의 생활 특성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가 여가 시간의 확대이다. 여가활동의 빈도를 1점에서 5점으로 구분하여 ‘안함(1)’, ‘거의 안함(2)’, ‘가끔씩(3)’, ‘자주(4)’, ‘매우 자주(5)’로 응답하게 하였다. 독신자들은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이용(평균= 4.11)을 가장 자주 즐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취미활동(평균=2.80), 영화 및 연극관람(평균=2.78), 일이나 친목을 위한 음주(평균 =2.77), 파티나 게임(평균=2.56) 등의 여가활동은 가끔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독신자들의 여가활동

여가활동	빈도(평균)	여가활동	빈도(평균)
영화 및 연극관람	2.78	파티나 게임	2.56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이용	4.11	일이나 친목을 위한 음주	2.77
취미활동	2.80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신자들의 여가활동이 매우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신자들이 여가활동을 즐길만한 제반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독신자의 여가활용을 위해서 여가 생활 수용 주택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2) 주거내 시간활용

주택내 거주시간, 가사노동시간 및 식사준비 등과 관련된 주거내 시간활용을 조사하였

다. 독신자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일에는 하루 평균 9.5시간, 주말에는 하루평균 13.1시간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밖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일인 경우 주택 내에서는 취침이 주된 주생활행위일 것으로 예측된다.

식사준비나 세탁, 집안청소 등의 가사노동은 평일인 경우 하루 평균 1.1시간, 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하루 평균 2.2시간으로 거의 집안 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택내 거주시간

거주하는 시간	평균시간	집안 일하는 시간	평균시간
평일	9.5	평일	1.1
주말이나 휴일	13.1	주말이나 휴일	2.2

식사도 집에서 직접 준비하는 경우가 아침인 경우 46명(28.9%), 점심인 경우 12명(7.5%), 저녁인 경우도 42명(27%)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독신자들의 식습관

식 사		빈 도	백분율(%)
아침	거름	93	58.5
	매식	20	12.6
	직접준비	46	28.9
점심	거름	1	0.6
	매식	146	91.8
	직접준비	12	7.5
저녁	거름	6	3.8
	매식	110	69.2
	직접준비	43	27.0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과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 식사 습관 등을 고려한다면 독신자의 경우 주택 내의 가사노동은 더욱 집약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할 것으로 예측되며, 식사와 관련되는 부엌공간의 디자인은 일반가구와는 달리 간단하고 편리할수록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3) 소비생활

독신자들이 가장 많은 소비 지출 비목은 외식비(19.4%)이며, 교양, 오락, 교체비(16.9%),

의복 및 신발비(15%), 식료품비(13.1%), 교육비(13.1%), 주거비(9.4%)의 순이었다.

〈표 5〉 독신자들의 소비지출항목

지출비목	빈도	백분율(%)
외식비	31	19.4
교양, 오락, 교제비	27	16.9
의복 및 신발비	24	15.0
식료품비	21	13.1
교육비	21	13.1
주거비	15	9.4

독신가구에 있어 주거비 지출은 매우 적으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거비 지출 성향은 주택의 크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소형주택이면서 주거비 및 관리비 지출이 적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3. 독신가구의 주거선호

독신가구의 주거선호는 주택의 유형과 규모, 공간의 중요도, 주택 내 필요공간, 필요 시설설비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주택의 유형

독신자들이 현재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소형아파트(36.9%)이며, 그 다음은 일반주택(25.0%)의 순이었다. 독신자들이 향후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로 59.9%가 아파트를 선호하며, 그 중 41.4%가 소형 아파트에, 18.5%가 원룸형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였다.

최근 독신자나 직장인들의 수요에 대응하여 호텔식 원룸 및 오피스텔 등의 주거형태가 분양, 임대되고 있으나, 실제 독신자들은 이러한 임시 거주식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주택의 유형

주택의 유형		빈도	백분율(%)	주택의 유형		빈도	백분율(%)
현재	소형아파트	59	36.9	미래	소형아파트	65	41.4
	원룸형아파트	29	18.1		원룸형아파트	29	18.5
	오피스텔	5	3.1		오피스텔	17	10.8
	원룸형주택	17	10.6		원룸형주택	13	8.3
	일반주택	40	25.0		일반주택	20	12.7
	기타	10	6.3		기타	13	8.3
	소계	160	100.0		소계	157	100.0

2) 주택의 규모

현재 독신자들은 평균 17.48평의 크기에 거주하고 있으며, 평형별로는 10-20평 미만의 규모에 48.9%로 가장 많이 거주하며, 10평 미만의 주택에 15.8%가 거주하였다.

독신자들이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주택의 크기는 평균 25.29평이며, 평형별로는 20-30평 미만을 가장 원하며(40.5%) 그 다음이 10-20평 미만(3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는 규모보다 약 7.8평 큰 규모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주택의 규모

주택의 규모		빈도	백분율(%)	주택의 규모		빈도	백분율(%)
현재	10평 미만	25	15.8	미래	10평 미만	2	1.3
	10-20평 미만	77	48.9		10-20평 미만	48	30.4
	20-30평 미만	39	24.7		20-30평 미만	64	40.5
	30-40평 미만	14	8.9		30-40평 미만	32	20.3
	40평 이상	3	1.9		40평 이상	12	7.6
	소계	158	100.0		소계	158	100.0

3) 공간의 중요도

독신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을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차례로 응답하게 하였다. 1순위인 경우 응답자의 90명인 56.3%가 침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며, 거실은 42명인 26.3%, 욕실은 17명인 10.6%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순위인 경우 욕실(34.4%)이, 3순위인 경우도 욕실(31.3%)이 가장 많았으며, 4순위는 부엌(33.8%), 5순위는 수납(47.5%)의 순이었다.

독신자의 경우 일반가구와는 달리 주택의 중심이 거실이나 식당이 아니라 침실과 욕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자는 가족들과의 가족 단란이 없으므로 거실의 중요도가 침실과

욕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독신자에게 주택은 완벽한 휴식과 취침을 위한 공간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8〉 공간의 중요도

공간의 중요도		빈도	백분율(%)	공간의 중요도		빈도	백분율(%)
1순위	침실	90	56.3	4순위	부엌	54	33.8
	거실	42	26.3		수납	43	26.9
	욕실	17	10.6		욕실	28	17.5
2순위	욕실	55	34.4	5순위	수납	76	47.5
	거실	41	25.6		부엌	42	26.3
	침실	37	23.1		거실	24	15.0
3순위	욕실	50	31.3				
	부엌	43	26.9				
	거실	26	16.3				

따라서 독신자를 위한 주거공간은 각 공간의 면적비율과 향 등을 거실보다는 침실과 욕실 위주로 계획해야 할 것이다.

4) 필요 공간

독신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택의 공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도에 따라 1점에서 4점으로 구분하여 ‘전혀 필요하지 않다(1)’, ‘필요하지 않다(2)’, ‘필요하다(3)’, ‘매우 필요하다(4)’로 응답하게 하였다.

샤워실(평균=3.54)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으며, 그 외 컴퓨터 전용공간(평균=3.22), 재택근무공간(평균=3.03), 운동공간(평균=3.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샤워실의 요구도가 높은 것은 욕실공간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일치하는 답으로 독신자들에게 휴식은 매우 중요한 주거의 기능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C의 보급확대 정보 네트워크화 등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거주자들은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용과 같은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컴퓨터 전용공간, 재택근무공간에 대한 독신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교나 놀이 공간보다는 휴식이나 운동공간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9〉 주택내 필요 공간

공간	필요도(평균)	공간	필요도(평균)
취미공간	2.73	놀이/파티공간	2.36
재택근무공간	3.03	드레스실	2.50
컴퓨터전용공간	3.22	홈바	2.20
운동공간	3.00	샤워실	3.54

5) 필요시설

독신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택의 시설설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도에 따라 1점에서 4점으로 구분하여 ‘전혀 필요하지 않다(1)’, ‘필요하지 않다(2)’, ‘필요하다(3)’, ‘매우 필요하다(4)’로 응답하게 하게 하였다.

대부분의 시설설비의 평균 요구도가 3점을 넘어 독신자들의 시설설비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평균=3.58)을 가장 필요로 하였고, 붙박이장(평균=3.29), 자동냉난방 시스템(평균=3.24), 인터넷 TV(평균=3.20), 가전제품 빌트인(평균=3.17), 가사경감형 기기(평균=3.14)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표 10〉 주택내 필요 시설설비

시설설비	필요도(평균)	시설, 설비	필요도(평균)
붙박이장	3.29	자동방범 경보 시스템	3.03
가전제품 빌트인	3.17	정수 시스템	3.06
가사 경감형 기기	3.14	자동 조명 제어기	2.69
초고속 정보통신망	3.58	자동 공기 청정 시스템	3.04
인터넷 TV	3.20	자동 냉난방 시스템	3.24
위성방송 시스템	3.02		

6) 주거의 소유 및 공유정도에 관한 의견

독신가구의 경우 응답자의 119명(74.8%)이 주택을 소유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36명(22.6%)이 전세로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미래에는 가족구조 및 가구원수의 감소 등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보다는 거주 개념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실제 독신가구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나 직장 동료, 함께 일을 하는 사람 등과 주택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독신자의 73.8%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거주 개념이 강화되면서 호텔식 주거, 오

피스텔 등이 직장인, 독신자들을 대상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현재 독신가구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은 아닌 것으로 예측된다.

〈표 11〉 주택의 소유 및 공유에 대한 의견

주거의 소유	빈도	백분율	주거의 공유	빈도	백분율
소유	119	74.8	공유하길 원한다	42	26.3
전세	36	22.6	공유하고 싶지 않다	118	73.8
월세	4	2.5	계	160	100.0
소계	159	100.0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선호

성별과 연령에 따른 주거선호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의 규모, 공간 및 시설설비의 필요도는 남자와 여자, 30대와 40대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1) 주택의 규모

현재 주택의 크기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남성은 평균 15.67평 정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19.24평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약 3.5평정도 적은 규모에 거주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평균 22.24평으로 30대의 평균 16.02평보다 6.2평정도 넓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40대가 30대보다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성별, 연령에 따른 주택의 크기

주택의 크기	성 별			연 령		
	남	여	t	30대	40대	t
현재	15.67	19.24	-2.39*	16.02	22.24	-3.07**
미래	26.38	24.26	0.71	24.87	26.68	-0.78

*p<.05 **p<.01

2) 공간의 필요도

독신자들이 주택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인 경우 컴퓨터 전용공간에 대한 요구가 여성보다 높았으며, 여성인 경우 드레스

실에 대한 요구가 남성보다 높았다. 또한 30대가 40대보다 재택근무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13〉 성별, 연령에 따른 공간의 필요도

필요공간	성 별			연 령		
	남	여	t	30대	40대	t
취미공간	2.73	2.74	-0.06	2.72	2.75	-0.14
재택근무공간	3.06	3.00	0.62	3.08	2.83	2.08*
컴퓨터 전용공간	3.37	3.07	2.79**	3.26	3.05	1.46
운동공간	2.96	3.04	-0.69	2.98	3.05	-0.65
놀이/파티공간	2.37	2.35	0.22	2.31	2.48	-1.13
드레스실	2.19	2.79	-4.82***	2.46	2.59	-0.79
홈바	2.13	2.27	0.27	2.25	2.02	1.45
샤워실	3.50	3.57	-0.86	3.53	3.54	-0.04

*p<.05 **p<.01 ***p<.001

〈표 14〉 성별, 연령에 따른 공간의 필요 시설설비

필요시설설비	성 별			연 령		
	남	여	t	30대	40대	t
블랙이장	3.10	3.47	-3.88***	3.23	3.47	-2.16*
가전제품빌트인	2.94	3.21	-2.37*	3.00	3.25	-2.02*
가사경감형 기기	3.09	3.14	0.01	2.98	3.22	-2.19*
초고속 정보통신망	3.59	3.57	0.25	3.60	3.50	0.97
인터넷 TV	3.21	3.20	0.04	3.15	3.36	-1.60
위성방송 시스템	3.12	2.93	1.51	3.00	3.08	-0.60
자동 방범 경보 시스템	2.82	3.23	-3.29**	2.96	3.25	-2.04*
정수시스템	2.87	3.23	-3.28**	3.00	3.22	-1.57
자동 조명제어기	2.55	2.81	-2.00*	2.62	2.88	-1.63
자동 공기 청정 시스템	2.96	3.14	-1.73	2.97	3.25	-2.06*
자동 냉난방 시스템	3.17	3.31	-1.44	3.17	3.44	-2.60*

*p<.05 **p<.01 ***p<.001

3) 시설설비의 필요도

독신자들이 주택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설비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

다. 모든 시설설비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40대가 30대보다 기본적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불박이장, 가전제품 빌트인, 자동방범 경보 시스템, 정수 시스템, 자동 조명제어기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40대는 30대보다 불박이장, 가전제품 빌트인, 가사경감형 기기, 자동방범 경보시스템, 자동공기청정시스템, 자동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가 컸다.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좀더 편리한 시설설비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최근 통계에 의하면 독신가구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0년 현재 222만4천 가구로 총 가구수의 15.5%를 차지하게 되었다. 독신가구의 증가 추이는 우리나라의 가족구성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미래 주택시장의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된다.

독신자들은 고학력, 고소득 및 전문직 직종의 종사자들이 많으며 이들은 대부분 끊임없는 자기발전, 개성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획일화된 주택공간보다는 개성화, 생활의 합리화,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등이 강조된 공간이 요구된다. 또한 독신자 주거의 경우 가족단란이나 커뮤니케이션 중심보다는 휴식과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게 된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독신자나 직장인들을 위해 계획된 주거용 오피스텔이 미분양 되고 있다. 이는 다만 공급과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주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차별화 전략으로 새로이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대형 아파트 단지나 고급 주상복합에나 있던 수영장, 헬스장 등과 같은 운동 공간 및 생활에 필요한 집기 일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독신자들이 원하는 주택에 대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실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독신자 주택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독신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다.

- 1) 기존의 원룸식 주택이 10평형 중심이었다면, 독신 가구는 25.29평 규모의 공간 집약적인 소형 주택을 원한다. 독신자 주택은 심미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이 강조된

주택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독신자 주택은 소형의 도심 공동주택의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주거, 업무, 상업, 교육, 여가 등이 하나의 건물 혹은 한 단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고층건물의 개발이 예상된다.

- 2) 일반 가구는 거실과 부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독신가구는 침실과 욕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독신자 주택은 공간의 중요도가 다르므로 공간의 중요도에 따라 각 공간의 크기, 향 등을 재배치하거나 침실과 욕실 중심의 평면형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독신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내 공간은 샤워실, 컴퓨터 전용공간, 재택근무공간, 운동공간 등이다.

- 3) 독신자 주택내 시설설비는 전자 및 정보관련 기기 도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실내환경의 자동 조절, 가사노동의 최소화, 정보화 사회의 각종 혜택이 주택내에서 보편화될 것이다. 또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을 기반으로 홈쇼핑, 홈뱅킹, 재택근무, 원격진료, 원격교육 등의 정보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독신자들이 선호하는 주택내 시설설비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불박이장, 자동냉난방 시스템, 인터넷 TV, 가전제품 빌트인, 가사경감형 기기 등이다.

- 4) 공간의 필요도에 있어서는 남성인 경우 컴퓨터 전용공간, 여성인 경우 드레스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30대는 40대보다 재택근무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시설설비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불박이장, 가전제품 빌트인, 자동방범 경보 시스템, 정수 시스템, 자동 조명제어기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40대는 30대보다 불박이장, 가전제품 빌트인, 가사경감형 기기, 자동방범 경보시스템, 자동공기청정시스템, 자동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가 컸다.

이처럼 성별, 연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과 시설설비에 차이가 나는 요소가 있으므로 주택전문가는 주택개발에 앞서 이러한 차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독신가구의 주거계획 방향을 제시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독신가구의 주거계획 방향

사회문화적 변화와 독신가구의 생활양식	독신가구의 주거계획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독신가구의 증가 ■ 간단하고 외식위주의 식습관 ■ 주거비/관리비 지출 적고 제한적 	소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아파트(20-30평) ■ 부엌공간의 최소화/ 간단하고 편리한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네트워크화 ■ 자동화(OA, FA) ■ 정보관련 서비스 증대 ■ PC 활용 증대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 재택교육을 위한 공간 ■ 정보관련 기기, 시설설비 증대 ■ 초고속 정보 통신망 ■ 가정 자동화(HA) ■ 재택근무공간/ 컴퓨터 전용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성 추구 ■ 고효율, 신기능화 ■ 고기능 첨단제품의 요구 ■ 가사노동의 최소화 	고기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내 시설설비의 기계화/전자화 ■ 실내환경자동조절 ■ 자동냉난방 시스템, 공기청정 시스템, 자동 조명 제어기, 자동 방범 경보 시스템 ■ 가사경감형 기기, 시설 증대 ■ 첨단가전제품의 빌트인(built-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 근무 증가, 전문직의 증가 등 취업구조 및 형태의 변화 ■ 시간의 여유, 여가시간의 확대 ■ 개성추구 ■ 물질적 풍요 	여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생활 수용 주택 ■ 침실과 욕실 위주의 평면형 ■ 공간의 크기 및 향의 재배치 ■ 운동공간/샤워실 ■ 인터넷 TV/ 위성방송시스템

따라서 주택에 대한 정책결정자나 공급자들은 독신자 주거 계획시 이러한 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한 선호도 조사에 그쳤으나 향후 실제 계획에 필요한 여러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정형화하여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30, 40대에 치우쳐 있으며, 조사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독신주택을 계획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와 조사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훨씬 정확한 독신자 주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